

모세와 개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느님께서 질병을 주셔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느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죄짓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느님은 죄짓지 않은 사람도 같이 죽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한참 뒤에 배를 타고 가다가 노를 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배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개미들이 모세 다리 위에 올라와 기어 다녔습니다.

모세는 손바닥으로 개미를 때려서 죽였습니다.

이때 하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왜 개미를 죽였느냐?”

“저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몇 마리 개미가 너를 물었느냐? 다 문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가 너를 문 개미와 물지 않은 개미를 구별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나도 그랬다.”